

美 그루만사 마틴 마리에타사에 매각 단행

- 냉전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수업체 합병 -



◀ 냉전의 종식에 의해 미국의 국방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수산업의 일거리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 작년말 GD사는 전투기 부서를 록히드사에 매각했고, 그루만사도 이번엔 과감히 매각을 단행하였다. (사진은 이륙하는 F-14 톰캣)

영화 「탑건」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F-14 톰캣 전투기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미그루만사가 3월 7일 전자군수업체인 마틴 마리에타사에 19억불에 팔렸다.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그루만사는 미국방예산감축에 따른 군납감소로 간판을 내리게 된 것이다. 두 군수업체의 합병은 탈냉전이후 미국방산업에 몰아치는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그루만사는 1929년에 설립된 이래 주로 미해군기를 만들어온 회사이다.

F-14 톰캣 전투기를 위시하여 A-6 인트루더 공격기, 전자전기 EA6B, 공중조기경보기 E-2 등 대부분의 항모탑재기들이 그루만사 제품이다.

80년대 후반이래 침체일로를 걸어온 그루만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미군수산업체가 얼마나 급격히 변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87년 그루만사는 3만3천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지금은 1만8천명으로 무려 45%나 감원했다.

현재출액도 90년에 비해 23%나 줄었고 93년 순익은 6천5백만불로 전년도대비 45%나 급감했다.

게다가 아직도 다수의 그루만사 군용기가 군에서 쓰여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F-14, EA6B, A6기 등은 생산이 완료되었고, E2기도 생산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와같은 상황에서 동서 냉전해소 후 극단적으로 줄어든 차세대 군용기사업, 그나마 계약을 따낼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신형기사업계획에 대비해서 개발에 필요한 인원이나 시설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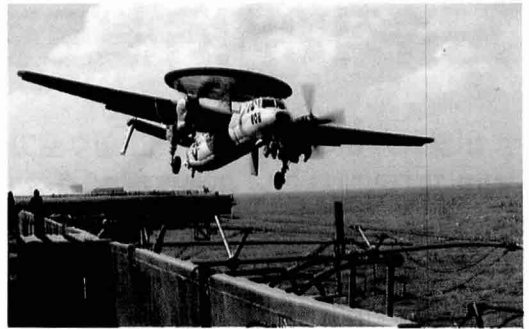
공중 조기경보기 E-2나 전자전기 EA6에서 알 수 있듯이 그루만사는 군용전자기술에 매우 강하다.

일찍이 공군의 GD사제 F111 전투기를 전자전기 EF111로 개조한 실적도 있고, 조인트 스타즈로 알려진 전장감시기 E8기(원기체는 보잉 707기)의 주 계약업체가 되기도 하였다.

美 국방부는 군수산업체의 합병을 장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합병만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첨단군사기술 개발을 가능케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군비확장도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성능 군용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메이커는 록히드, MD, 노드롭, 록웰, 보잉의 5개사로 줄었으나 아직도 사업량에 비해 업체수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업계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그루만사를 인수한 마틴 마리에타사는 세계최고의 전자군사장비회사로 종업원



▲사라토가 항모에서 이륙하는 E-2 Hawkeye

9만3천여명에 지난해 매출액은 94억불인 세계 12위의 군수회사였는데, 이번 그루만社의 인수로 4~5위로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신형 미사일 2種 개발중 - 최대 3500km로 노동2호의 2배



▲북한의 신형 스커드 미사일

북한 은 사정거리가 최고 3천5백km에 달하는 2가지 신형미사일을 개발중이라고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가 최근 보도했다.

美정보 소식통들을 인용, 미국 첩보위성이 북한의 북동해안의 사남동연구소에 있는 실물크기의 신형 2단 미사일 모형을 포착했으며, 美정보기관에 의해 잠정적으로 「대포동 2」(TD-2)로 명명됐다고 전했다.

포착된 미사일 모형은 전장 32m에 1, 2단 직경은 각각 2.4m, 1.3m이어서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또하나의 신형미사일 TD-1의 사정 2천km(탄두무게 1.5t)보다 훨씬 비행거리가 긴 미사일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이 군사전문지는 설명했다.

이 잡지의 폴 비버 발행인은 『미국은 이 미사일들이 개발단계인지 아니면 생산단계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일본 소식통들은 두가지 형의 미사일들이 오는 98년이전에 발사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TD-2의 경우 궤를 사정거리내에 두고있어 궤에 미군기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신형 미사일 개발은 이 지역 평화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일본 교도(共同)통신도 이날 런던발로 북한의 신형미사일 개발 사실을 보도하고 TD 미사일은 일본 오키나와를 비롯 일본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